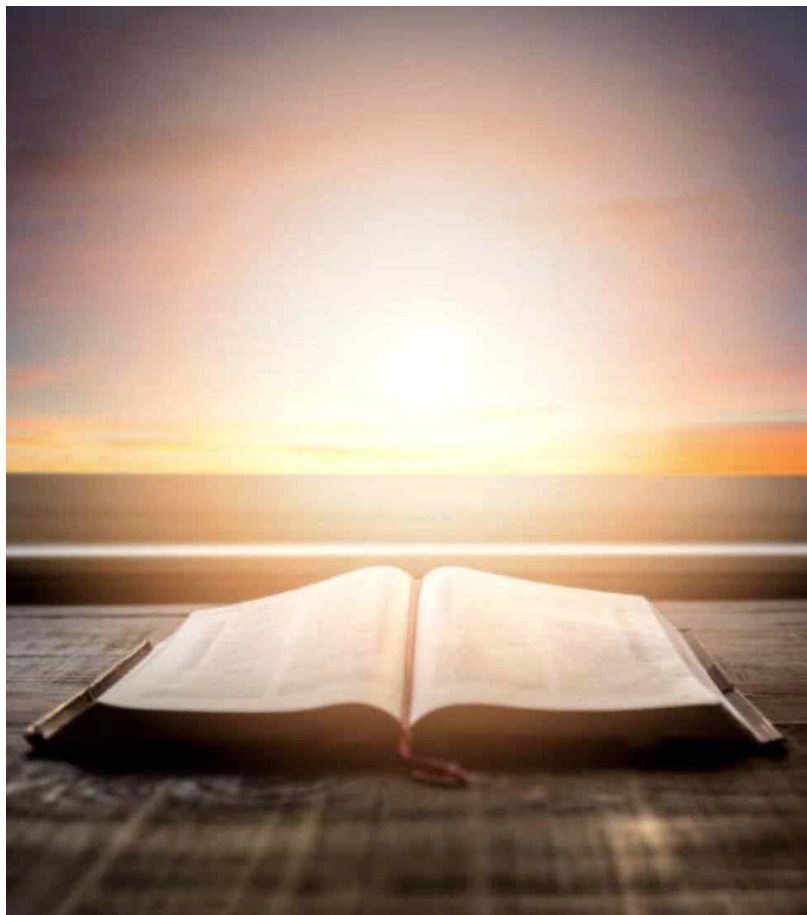


만남

2024년 01월
통권 22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앙 나눔	-----	3
바티칸 소식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	12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9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0
공동체 소식	-----	21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2
월중 행사표	-----	23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4
미사안내	-----	25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교회 내 다양성의 선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선물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전통과 예법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생명의 말씀이 새해를 밝히네! (최영숙 데레사)

새해의 아침을 성경봉독과 묵주기도로 문을 여니
말씀은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은 축복의 선물이라
생명의 말씀이 새해를 밝히며 성령님을 모셔오니
제 영혼 기뻐하며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니
말씀봉독 때는 반짝이는 별빛처럼 영혼을 비추고
말씀묵상 때는 울리는 징처럼 사랑이 영글어가고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을 모시듯 마음이 행복하네!

영원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새해를 맞아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며
인생의 보약인 구약신약성경이 진리의 빛 되어
영혼의 밥으로 오신 성체를 모시고 감사드리네!

생명의 말씀이 희망과 축복으로 새해를 밝히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는 감사기도 드리고
슬프고 아프고 불행할 때에는 청원기도 드리며
예수님사랑과 평화로 세상이 하나 되길 바라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 부활로 영원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품고 사는 자녀가 되고 싶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 14)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4년 1월 1일)

인공 지능과 평화

주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때인 새해를 시작하며, 하느님의 백성은 물론 여러 민족, 각 나라와 정부 지도자, 다양한 종교와 시민 사회 대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저는 평화를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1. 평화의 길인 과학과 기술의 진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어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탈출 35,31)를 채워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우리가 창조주께 받은 존엄을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어(창세 1,26 참조), 우리가 의식적이고도 자유롭게 당신 사랑에 응답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 지능이 지닌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적 특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 지능의 창조적 잠재력이 빚어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서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려고 언제나 분투하여 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진리를 재천명하였습니다. 인간은 “기술의 힘으로 땅을 온 인류 가족의 알맞은 거처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계획에 맞게 행동하며 창조의 완성과 민족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느님 뜻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사회 질서와 형제적 친교와 자유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한다면 인류의 발전과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뛰어난 성취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 덕분에 인류의 삶을 괴롭히고 커다란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과학의 발전은 현실에 대하여 이제껏 없었던 통제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손에 방대한 선택권을 쥐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 기술 특히 디지털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흥미로운 기회면서 동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여 민족들 간의 정의와 화합의 추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긴급한 문제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개인의 삶과 사회에, 그리고 국제적 안정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인공 지능의 미래: 기대와 위험 사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정보 기술의 진보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미 국제 사회와 그 다양한 역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공 행정, 교육, 소비, 개인 상호관계,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의 수많은 측면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기술은 인터넷을 통하여 퍼진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으로부터,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정신적 관계적 습관을 좌우하게 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흔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의식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제약을 받습니다. 정보 과부하가 특징인 웹과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기술은, 사용자가 늘 인지할 수는 없는 선별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이 현실과 유리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인간 활동으로서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이 택하는 방향은 그 시대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조건 지은 선택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대하는 인간의 특별한 방식의 결실이기때문에, 그 실험을 설계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도출로 이끄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과 언제나 긴밀히 연관되는 윤리적 차원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 지능의 유형들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까지 과학 기술계에서는 인공 지능에 관하여 하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상 언어가 되어 버린 그 용어 자체에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그 기능 안에 재생하거나 모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과학, 이론, 기술이 망라됩니다. ‘지능의 유형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러한 시스템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강력하다고 한들, 결국 이 지능의 유형들은 인간 지성의 특정 기능들을 모방하거나 재생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일 뿐입니다. 또한 복수로 말하는 것은 이 장치들 사이에도 서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을 늘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떤 인공 지능 장치도, 기저에 있는 기술과 무관하게, 그 기술 설계만이 아니라 그 장치 소유자들과 개발자들의 목적과 이윤 그리고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인공 지능을 다양한 실재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로 여겨야 합니다. 그 발전이 인류의 미래와 민족들 사이의 평화에 유익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선협적으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하고 “포용, 투명성, 안보, 공정, 사생활 보호, 신뢰”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디지털 기술을 설계하는 이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인공 지능의 유형들을 이용하거나 그 영향 아래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기구를 강화하거나, 필요하다면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술의 무한 확장에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책임 교육이 따라야 합니다. 인간이 이기심, 개인의 이익, 이윤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라는 유혹에 진다면 자유와 평화로운 공존은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 기술-과학 연구가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발전에 봉사하면서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타고난 존엄과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묶어 주는 형제애가 신기술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그 사용에 앞서 이를 평가하는 데에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발전이 정의에 맞게 이루어지고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기술 발전은 결코 참다운 발전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인공 지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인공 지능이 제기하는 도전은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인간학적,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은 데이터 축적과 구조화와 확인 과정의 혁명은 물론 고된 노동에서의 해방, 더욱 효율적인 제작 공정, 더 편리한 수송과 더욱 준비된 시장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변화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이 지닌 최대의 잠재력과 가장 높은 열망에 봉사하는 것이지 인간과 경쟁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미래의 기술: 스스로 ‘배우는’ 기계

머신 러닝 기술에 기반한 인공 지능은 아직은 개척 단계에 있지만 그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사회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문화, 사회적 행동, 평화 건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머신 러닝 또는 딥 러닝과 같은 발전은 기술과 공학의 영역을 넘어 인간 삶의 의미, 지식의 형성, 진리에 도달하는 정신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그 일례로, 특정 장치들이 구문론적 의미론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결코 그 장치들의 신뢰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럴듯한 오류의 환각’(hallucinate: 인공 지능이 맥락과 관련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옳은 답처럼 내놓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듯하지만, 근거가 없거나 고정관념에 반하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공 지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왜곡 심화로 이어지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동원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기술이 중대한 위협을 생겨나게 하는 분야로 사생활 보호, 데이터 저작권,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오용에 따른 또 다른 부정적 영향에는 차별, 선거 개입, 감시 사회의 증대, 디지털 배척, 점점 사회와 유리되는 개인주의의 팽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분쟁을 부채질하고 평화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하며 복잡적이어서 완전히 파악하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발전된 알고리즘의 도움으로도 인간 정신의 풍요로움은 결코 완전히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보장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계적 근사치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실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계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 지능이 분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결코 그 자체로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를 추론할 때는 언제나 왜곡의 위험이 따르며 정보가 생겨난 환경이 지닌 불의와 편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빠르고 복잡해질수록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더 어려워집니다.

‘지능형’ 기계는 맡겨진 과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작동의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고유한 가치 체계를 소유한 인간이 결정하거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정들을 내리는 기준들은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

결정의 책임이 은폐되며, 생산자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경제와 기술을 연계하고 효율성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즉각적 이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무시하곤 하는 기술 지배적 체계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기술 지배적이고 효율 지향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흔히 간과되지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결정적인 그 무엇 곧 ‘한계의 자각’에 대하여 성찰하게 해 줍니다. 인간 존재는 처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납니다. 기술을 통하여 모든 한계의 극복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열망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기술 독재’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위험에 빠집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성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반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프로메테우스적 가정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이념적 맥락 안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지식과 부는 소수의 손에 축적되며, 민주 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5. 긴박한 윤리 문제

미래에는 주택 담보 대출 신청자의 신용, 개인의 직무 적합성,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범 가능성, 또는 정치적 비호나 사회 보호 수급자의 권리 등이 인공 지능 체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도입하는 조정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각종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특히 노출됩니다. 체계의 오류가 쉽게 배가되고, 개별 사례의 불공정만이 아니라 도미노 효과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인공 지능의 유형들이 그 촉진과 제지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선택안들을 통하여 작동하거나 정보 설계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선택을 규제하는 체계를 통하여 작동함으로써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종 또는 사회적 통제에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그 생산자, 배포자, 정부 당국은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 관찰을 널리 이용하거나 사회 신용 시스템을 채택하여 개인들을 분류하는 자동화 과정에의 의존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사이에 계급을 설정함으로써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 분류 과정들은 권력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 세계 사용자만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에게도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근본적 존중으로 우리는 일련의 데이터를 통하여 개인의 고유성을

확인하는 일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거나 연민과 자비와 용서가 지니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없애버릴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또는 개인적 변화를 이루고 과거를 뒤로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기술이 일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한때 인간 노동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일자리들은 인공 지능이 산업에 적용됨으로써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한 많은 이들의 빈곤을 대가로 소수가 불균형하게 혜택을 누릴 위험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 우리 일터로 더욱 깊이 파고들고 있기에, 국제 사회는 노동의 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안녕을 위한 고용의 중요성, 고용 안정과 공정 임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6.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보면 군비 부문에 관련된 중대한 윤리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군사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이것이 야기하는 파괴에 대한 인식과 그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켜, 전쟁의 엄청난 참상을 점점 더 냉담하고 무심하게 대하게 합니다. 인공 지능의 무기화를 비롯하여, 이른바 치명적 자율 무기 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심각한 도덕적 우려를 불러옵니다. 자율 무기 체계는 결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유한 인간 능력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집합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 능력은 기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능적’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기계는 여전히 기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무기 체계에 대한 적절하고 의미 있으며 일관된 인간의 감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교한 무기가 결국 그릇된 자들의 손에 들어가, 이를테면 합법적 정부 체제의 제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나 개입을 조장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곧 세계는 불의한 상업 개발과 무기 거래에 기여하여 결국 어리석은 전쟁을 부추기는 신기술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도 더 ‘인공적’이 될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분쟁의 폭력적 해결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평화의 길을 닦는 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인공 지능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이는 농업,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를 활용하여 가장 작은 형제자매들과 취약한 이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포용하는 길이 인류애의 참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참으로 인간적인 전망과 바람은 분명 알고리즘의 윤리적 발전을, 곧 가치관이 신기술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윤리(algor-ethics)를 목표로 하는 학제 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연구에서 출발하여 실험, 설계, 생산, 배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윤리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 기관과 의사 결정 책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설계의 윤리적 접근법입니다.

7. 교육을 위한 도전 과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에 봉사하는 기술 발전은 교육 제도와 문화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기술은 소통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관계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술이 속속들이 배어 있는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르침과 교육과 양성 방식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 지능의 유형들 사용에 관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그러나 특히 젊은 세대의 사용자는 웹에서 수집되거나 인공 지능 체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콘텐츠 사용에 안목 있는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교, 대학교, 과학협회는 기술 발전과 그 활용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파악하도록 학생들과 전문가들을 도우라는 도전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수단의 사용에 대한 훈련은 또한 허위 정보, 곧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오랜 두려움이 신기술 뒤에 숨어 강해지는” 충격적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막고자 장벽의 문화를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에 다시 한번 맞서 싸우며 평화롭고 형제적인 공존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8. 국제법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

인공 지능의 전 세계적 규모는 그 국내 사용을 규제하는 주권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국제기구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과 집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양한 유형의 인공 지능의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고자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제 공동체가 함께 힘써 주기를 권고합니다. 규제의 목적은 당연히 나쁜 관행의 방지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관행을 장려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개인적 집단적 제안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개발자들에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 모형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의 식별은 필요한 법률적 틀을 형성하고 채택하여 적용하려는 사회의 헌신에 토대가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인공 지능의 유형들을 생산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의 초안 작업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기본 인권의 보호, 그리고 정의와 평화 추구에 관한 더욱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법적 식별 과정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기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더욱 공평하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성찰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는 가난한 이들, 이주민들, 그리고 국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흔히 무시되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나눈 성찰로 인공 지능이 발전하는 유형의 행보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형제애와 평화에 기여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의 책임입니다. 평화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상대방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관계의 열매이며 모든 개인과 민족의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과 헌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인공 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다양한 종교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선의를 지닌 모든 이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여 디지털 혁명이 제기하는 기회는 받아들이고 도전에는 맞서며 미래 세대에게 더욱 위대한 연대와 정의와 평화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23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의 기쁨 (시편 100, 1-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10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2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3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어라.

4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5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사는 기도를 하기 위해 선전에 들어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서는지 나누어 봅시다.
- 일상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하며 환호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완벽한 하느님의 후원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과 괴로움, 기쁜 일들을 아뢰며 성전에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흐느끼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당신 두 팔로 고요히 등 뒤에서 감싸 안으시는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느낍니다. “딸아 괜찮다. 아들이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과 부르짖음에서 차츰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와 포근함에 나의 마음이 따스함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나의 몸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로 숨을 불어 넣으시어 사람이 된 몸, 하느님의 영이 자리한 나의 몸,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의 숨결을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내 안에 자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고요와 침묵 속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몸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의 몸을 통해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몸을 움직여 당신 문으로 들어가고 당신 안뜰로 들어가서 찬양,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이 당신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가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나의 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샤를 드 푸코(1858~1916), 축일 12월 1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하는 신자는 부조리한 것을 꿈꾸는 셈입니다.”

샤를 드 푸코(Charles Eugène de Foucauld de Pontbriand) 성인은 나자렛 예수님을 유일한 본보기로 삼고 세상 끝까지 그분을 닮기 위해 길을 나선 ‘사막의 은수자’다. 나자렛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육화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막의 무슬림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삶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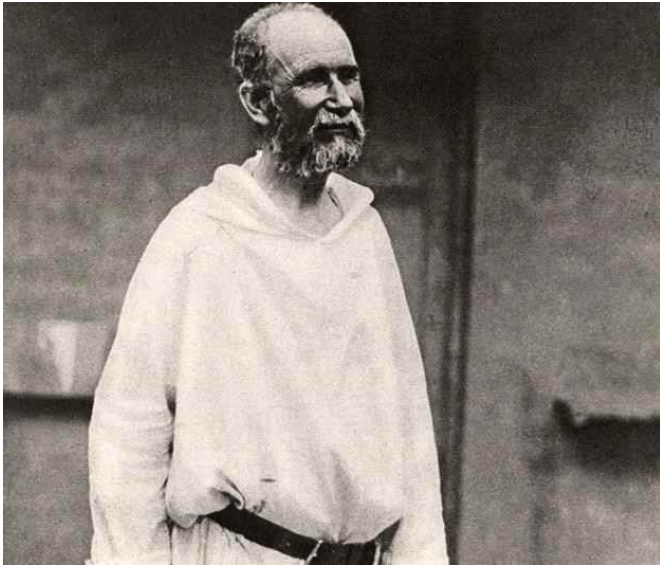
▣ 신 없는 세상의 한 청년

샤를 드 푸코는 1858년 9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에두아르 드 푸코는 대주교를 배출한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어머니 엘리자베트 드 모를레는 할아버지 때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집안 출신이었다. 산림 조사관이었던 아버지는 지방 출장이 잦았지만, 신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샤를과 그의 동생 마리에게 가톨릭교회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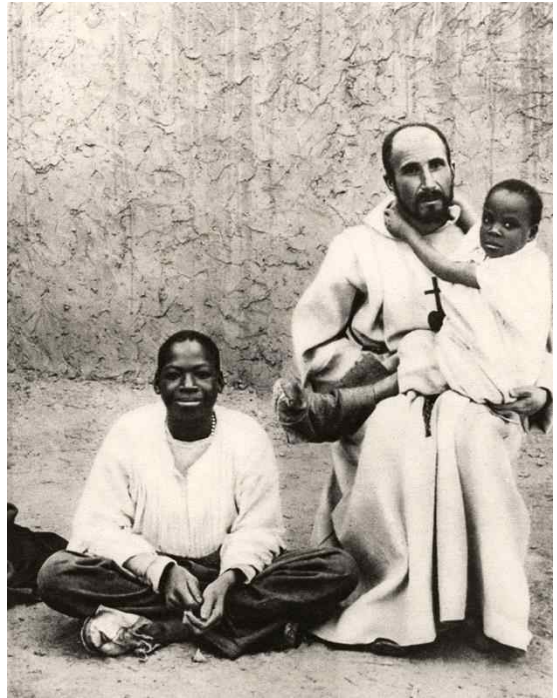
하지만 6살이던 1864년 어머니가 임신 중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자 아버지도 몇 달 뒤 신경쇠약으로 세상을 떠났다. 샤를 남매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지만 그도 곧 사망하고, 외조부 보테 드 모를레의 보살핌을 받았다. 샤를은 “할아버지께서는 한없는 자상함으로 나의 어린 시절에 사랑과 온기를 가득 채워주셨다”고 회상했다.

학창 시절 샤를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과 잔병치레로 학교에 빠지는 날이 많았다. 샤를은 책을 좋아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는 책들도 많았다. 샤를은 점점 신앙은 물론 종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됐다.

1876년 샤를은 군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고, 1878년에는 기병학교를 졸업했다. 장교로 임관한 샤를은 로렌과 알제리 북동부에서 복무했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샤를은 유산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먹고 자기만 하는 생각 없는 삶을 살아 ‘똥보 푸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샤를 드 푸코가 찍은 마지막 사진.



알제리 베니 아베스 은수처에서
두 부족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샤를 드 푸코(오른쪽).

▣ 성지의 은수자

군대 생활에 싫증을 느낀 샤를은 전역 후 1883~1884년 모로코, 1885년에는 사하라 사막을 탐험했다. 그는 광활한 사막에서 고독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알라신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무슬림의 순박하고 투철한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프랑스로 돌아온 샤를은 1886년 사촌누나에게 소개받은 앙리 위블랭 신부와의 영적 대화를 통해 고해성사를 보고 교회와 화해하면서 성체를 모셨다. 다시 신앙심을 갖게 된 샤를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와 금욕의 삶을 시작했다.

샤를은 1888년 말부터 1889년 초까지 4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일대 성지를 순례한 후, 1890년 나자렛의 트라피스트회에 입회했다. 샤를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아크베즈 지역 트라피스트회 수도원에서 지냈지만, 수도원 안 보다는 주로 마을의 가난한 주민들과 생활했다.

늘 더 큰 고독과 기도와 절제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수도원장의 허락을 받고 트라피스트회를 떠나 1897년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글라렛 수녀원의 문지기로 살며 1900년까지 밤낮으로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다. 허드렛일과 경건한 독서, 성경 공부, 기도로 가득한 생활을 하던 그는 1900년 아크베즈의 수도원으로 돌아가 사제품을 준비한 후 1901년 6월 9일 43살에 프랑스 남부 비비에 지방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 모든 이의 형제가 된 샤를

사제품을 받은 샤를은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로코와 알제리 국경 근처 베니 아베스 지역의 은수처로 들어갔다. 샤를은 베니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 부족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보편적 형제’가 되고자 했다. 샤를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형제로 바라보기를 원했고, 이들은 나의 집을 ‘형제의 집’이라고 불러 감동받았다”고 회상했다. 샤를은 스스로 ‘예수 성심의 형제회’라고 이름 붙인 은수처에서 늘 공개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조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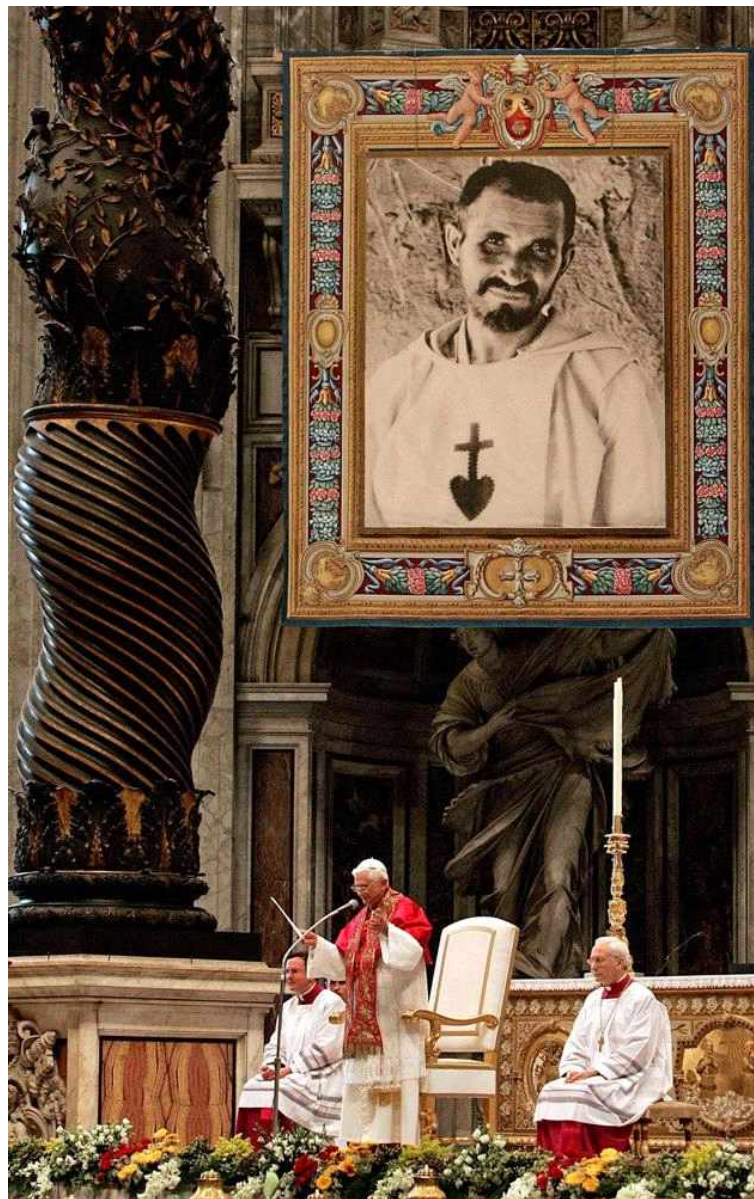
1905년 샤를은 베니 아베스를 떠나 알제리 남부의 도시 타만라세트 근처 아세크렘에 은수처를 마련한 뒤, 그곳에서 11년 동안 생활했다. 샤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투아레그족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이들의 언어와 관습을 배웠다. 투아레그족의 문학적 전통을 지키고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투아레그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 헌신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 투아레그족 사람들을 섬기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부족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샤를은 혼란의 와중에 약탈을 위해 쳐들어온 호전적 무슬림인 사누시(Sanusi)파에 납치됐다. 그들을 막으러 프랑스 군인들이 나타나자 샤를을 지키던 한 젊은이가 당황한 상태에서 그의 머리에 총을 쏘고 말았다. 그렇게 샤를은 1916년 12월 1일 사하라 사막에서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했다.

샤를이 선종한 후, 그의 영성은 세계 곳곳에 전해졌다. 그는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하느님을 깨닫는 행복을 누렸다. 그는 비그리스도교 대중 안으로 파고들어 간 선구자였다. 아프리카의

비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안에 살며 복음적 삶을 실천해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모색했다. 1933년 ‘예수의 작은 형제회’, 1939년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등 그의 영성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그는 2005년 시복됐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샤를 드 푸코 신부는 성체와 복음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인류와의 일치를 위해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편적 형제애로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15일 샤를은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성됐다.



2005년 11월 13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샤를 드 푸코의 시복미사를 봉헌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마리아	정마리아	27일	안젤라	남창순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산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백정선
21일	아네스	유곡지 김잔디 민보경 전우연	31일	요한 보스코	임현덕 강석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지그리드	Giersberg Sigrid(O)	21일	아네스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17일	안토니오	문철주(H)	27일	안젤라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고광완(B)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237	221	165	238
7일	487	220	182	100
14일	22	332	160	31
21일	66	215	163	77
28일	434	210	179	437

❖ 1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자	복사	커피봉사
1일	한말조(마리안나) 허채열(크리스티안)	박종래(바오로) 최영자(파올라)	신유경 (올리아)	박노아(노아) 김종호(야고보)	3구역
7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세실리아)	박성아 (베로니카)	박노아(노아) 추이솔(빈첸시오) *이동윤(엘리아스)	4구역
14일	요셉마리아회		박성아 (베로니카)	김종호(야고보) 이동빈(루카스) *이동윤(엘리아스)	요셉 마리아회
21일	비르지타회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최승진 (바오로)	박노아(노아) 이동윤(엘리아스)	1구역
28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길조(안드레아스) 허영자(가밀라)	최승진 (바오로)	추이솔(빈첸시오) 박요나(요나)	2구역

♥ 1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5)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수잔나, 정마리아, 한말조, 정명옥, 심동근, 조영희, 박춘실, 강순행

❁ 공동체 계좌 입금(11)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강신행,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김정숙

❁ 교구 계좌 입금(30)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최화영,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손수희, 배성우, 남궁춘배, 이영원, 김진호, 허채열, 이철우, 강일남, 최성자, 김원자, 김정숙, 육종인, 이호준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7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5.906,20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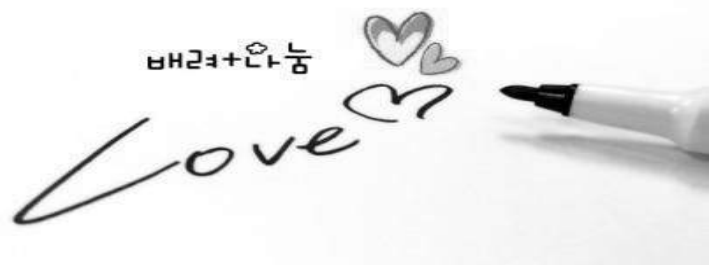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월 1일(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미사는 15시에 예수성심성당에서 봉헌하며, 미사 후에는 신정을 맞이하여 떡 나눔이 있겠습니다.
3. 1월 27일 18시 15분 성 안스가 축제 미사가 주교좌 돔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미사 때 우리 한인 공동체에서 한국어로 화답송, 보편 지향 기도를 하고, 복사 2명이 참여를 합니다. 만남성당 1층 강당에서는 19시부터 함부르크 대교구 소속 여러 외국인 공동체가 합동으로 문화행사를 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에서는 한인 사물놀이패를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4. 2월 2일(금)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날,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2월 4일 주일미사 때 초 축복식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쓸 초는 미리 신청하거나, 주일미사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회장 직책이 노금순 데레사 자매님에서 최한우 바오로 형제님으로 이임되었습니다. 봉사해 주신 노금순 데레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1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6일 브레멘, 13일 오스나브뤼크, 20일 하노버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성 가 정 학 교		매월 셋째 주일 14시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11월 - 3월 주일 13시30분 ~ 14시30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허길조(안드레아스)	
			총무	심선옥(도미니카)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1 월 행 사 표

2024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축 일	기관·단체 행사	비 고
1	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조정제 신부 신정
2	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이재영 신부
3	수			
4	목			
5	금			박창균 신부 금육
6	토		브레멘	
7	일	주님 공현 대축일	구역반장 월례회	
8	월	주님 세례 축일		안명옥 주교 주교 수품일
9	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꾸리아	구성진 신부
10	수			
11	목			김종원 신부
12	금			금육
13	토		오스나브뤼크	
14	일	연중 제2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15	월			
16	화			
17	수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정재덕 신부 故 이억민(바오로) 신부 28주기
18	목	일치주간		
19	금			금육
20	토		하노버	정연동, 강병모 신부 대한
21	일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성가정 학교 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22	월			김국진 신부
23	화			
24	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5	목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순교자 정찬문 안토니오 치명일(1867년)		조영희 신부
26	금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금육
27	토		안스가 문화축제 미사 / 18시 15분, 주교좌 마리엔돔	
28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사목회	비고란 참조
29	월			
30	화			
31	수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강윤철, 백남해 신부
비 고				
● 1월 28일: 김을용, 박태정, 김용, 이승언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공동체 주임신부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2. Etage)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 장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0 410978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Antonius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